

카페 판코



카페 FANCO는 언어교육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 9월 학생들 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와 언어교육원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학생들의 공모를 거쳐 탄생한 FANCO라는 카페 이름은 'Food & Nutrition & Coffee' 라는 뜻.



FANCO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그 운영 역시 학생들이 하고 있다. FANCO는 매니저, 부매니저, 캡틴, 프렌즈라 불리는 서울대학생 30여명이 카페를 운영한다. 학생들이 카페를 관리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도 사회 경험을 할 수 있고 손님들 역시 더 편하게 카페를 찾을 수 있다.

FANCO는 학생들의 문화공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내에는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며 FANCO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미술 작품은 매달 한 번씩 바뀐다. 카페 자체가 자그마한 미술관인 것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한다. 3월 14일에는 여성 고객들에게 사랑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4월 14일에는 판코팅이라는 단체 미팅 이벤트를 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음료의 가격은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이고, 샌드위치와 케이크의 가격도 2000원 내외이다. 가장 잘나가는 메뉴는 카페라떼(2000원)와 베이글 샌드위치(2500원)이다.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 글 : 이승호 / 사진 : 이정우